

예견담의 담화적 특성 연구-〈기문총화〉를 중심으로

황인순*

— <차 례> —

1. 서론
2. <기문총화> 소재 예견담의 담화 분석
3. <기문총화> 소재 예견담의 담화 특징
4. 예견담의 문화적 특성 밝히기: 야담집 내부의 담화성 도출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야담집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야담사, 문헌사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야담이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 탓으로, 크게 분류하자면 야담을 구술 서사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소설의 전단계 혹은 유사 장르로 인식하는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담을 구술 설화가 문헌화되어 전승되는 대상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문총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문총화>는 조선 말기의 야담집으로,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 등과 더불어 조선 시대 야담집 중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담집이나 개별 연구대상으로는 자주 다루이지 않았다. 그러나 <계서야담>과 <기문총화>간의 영향 관계가 밝혀져 왔고, 따라서 <기문총화>가 가지는 야담집으로서의 위상 역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더구나, <기문총화>에 수록된 야담의 수와 영역이 방대하므로 이는 일종의 야담 집대성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기문총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해당연구는 예견담의 담화 구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해당 텍스트 내에서 양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견담이다. 예견담이란, 특정한

* 서강대학교 강사.

예견의 주체가 어떠한 대상의 미래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발화하고, 이 발화가 진실인 것으로 판명되면 완료되는 것이다. 예견하는 주체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그가 가진 비범성에 주목하게 되고, 이는 그가 범인(凡人)과 구별되는 일종의 능력을 가진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되는 셈이다.

<기문총화> 예견담에 드러나는 담화의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속에서 예견담은 예견하는 인물의 능력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담화가 아니라, 오히려 담화적 독자가 자신의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텍스트를 해호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담화 구조이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사후의 당위를 부여하기 위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문총화> 예견담은 담화적 저자들의 배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며, 따라서 그 개입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주제어 야담, 기문총화, 담화 구조, 예견담, 커뮤니케이션

1. 서론

본 연구는 <기문총화>의 예견담의 담화 구조에서 드러나는 특질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야담집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야담사, 문헌사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야담이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 탓으로, 크게 분류하자면 야담을 구술 서사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소설의 전단계 혹은 유사 장르로 인식하는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담을 구술 설화가 문헌화되어 전승되는 대상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문헌화되어 있는 구술서사들은 구술성과 기술성의 특질을 모두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술서사를 문헌화한 텍스트들을 독해할 때 그 담화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시각이다.

그러므로 해당연구는 예견담의 담화 구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는 야담집과 관련한 기존의 장르, 사적 연구에서 벗어나서 텍스트의 문학성에 접근하는 방식이므로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담화성에 기초하여 텍스트의 문학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최종적으로 텍스트가 가진 문화적 맥락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담을 시대적 맥락, 혹은 확장한다면 담화적 맥락에서 유리하지 않으면서도 문학 텍스트로서의 야담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기문총화〉는 조선 말기의 야담집으로,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휘집〉 등과 더불어 조선 시대 야담집 중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담집이다. 〈기문총화〉는 편찬자가 존재하는 야담집이지만, 편찬자는 미상이다. 기존에는 〈기문총화〉의 단독 연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상기 야담집들과 〈기문총화〉의 연관관계에 주목하고자 했을 뿐이다.¹⁾ 이는 역으로, 〈기문총화〉의 담화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만한 충분한 요건이 되기도 한다. 〈기문총화〉를 분석하는 것이 일종의 총체성을 떨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문총화〉의

1) 〈계서야담〉, 〈계서잡록〉, 〈기문총화〉가 어떤 영향관계를 이루며 전개되었는지의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 중 하나이다. 1) 우선 〈기문총화〉에 속해 있는 자료들의 수가 다른 자료집의 이본군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양 차이. 2) 기문총화의 자료군이 〈동괘략송〉계의 자료집과 더불어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료라는 점 3) 세 자료집의 선후관계에 대한 해명이 야담문학의 흐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사실 〈기문총화〉 연구는 소위 조선조 3대 야담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휘집〉에 관련된 개별 연구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계서야담〉과 〈기문총화〉간의 영향 관계가 밝혀져 왔고, 따라서 〈기문총화〉가 가지는 야담집으로서의 위상 역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기문총화〉에 수록된 야담의 수와 영역이 방대하므로 이는 일종의 야담 집대성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지에서 〈기문총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정명기, 『야담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보고서, 2001 참조

담화 구조에 주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연세대학교 4권 4책본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기문총화>는 다양한 이본을 가지고 있다.²⁾ 연세대학교의 해당 이본은 총 637편의 텍스트를 담고 있다.

2. <기문총화> 소재 예견담의 담화 분석

<기문총화>는 방대한 양만큼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실재하는 역사적 인물과 얽힌 에피소드를 다루는 방식으로 꾸러져 있는 텍스트가 양적으로 다수이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을 기술하고 있는 텍스트도 적지 않다. 혹은 민간의 풍습이나 관습 등을 기술하는 텍스트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재를 중심으로 일화를 분류하기보다는 담화의 방식에 주목한다면, 구술서사의 경향과 기술텍스트의 경향을 복합적으로 가진 해당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새로운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해당 텍스트 내에서 양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견담이다. 예견담은, 특정한 예견의 주체가 어떠한 대상의 미래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발화하고, 이 발화가 진실인 것으로 판명되면 완료되는 것이다. 예견하는 주체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그가 가진 비범성에 주목하게 되고,

2) 김준형은 <기문총화>‘계’라는 용어로 『<기문총화>』, <계서야담>, 계서잡록 등을 정리하면서 <기문총화>의 이본으로 총 13본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연세대본(4권4책, 『집성』) ②일본 국회도서관 동양문고 을(乙)본(1권1책, 『수일』) ③영남대 동민문고본2권2책, ④임형택본(1권1책), ⑤일본 학습원대본(3권3책), ⑥연세대본(1권1책, 『紀聞叢記』), ⑦국립중앙도서관 갑(甲)본(2권2책, 『전집』5), ⑧서울대 가람문고본(2권2책, 『집성』6) ⑨동양문고 갑(甲)본1권1책, ⑩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본(1권1책), ⑪국도 을(乙)본(1권1책, 표제『記聞叢話鈔』), ⑫연세대본(1권1책), ⑬국사편찬위원회본(1권1책)

김준형,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 : 「기문총화」 1권 필기·폐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6, 2000, 7쪽.

이는 그가 범인(凡人)과 구별되는 일종의 능력을 가진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문총화>에서 예견담을 현재에 일어난 특정한 현상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로 매듭지어질 것임을 예견의 주체가 발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예견의 주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현재의 현상이 미래에 도출되는 시간적 간극이다. 예를 들어, 꿈이라는 현재의 현상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예견담의 범주에 포함되겠지만 꿈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현실에 일어나는 것은 예견담으로 다루지 않았다. 현재 발생한 특정 현상이 미래에 이와 관련된 형태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화 주체의 능력이 매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견 주체가 현상을 접하고, 이에 대한 예견을 하는데, 예견의 발화의 경우, ‘특정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와 같은 직접적인 발화로 제시될 수도 있으나, ‘특정한 일을 하지 말아라, 혹은 하라’와 같은 행동을 촉구하는 발화가 제시되기도 한다. 후자의 발화의 경우, ‘특정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예견담의 경우 예견하는 주체의 능력이 강조되는 담화가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견 주체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문총화>에서 주체가 해석을 하는 근거가 될 정보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견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예견의 주체의 해석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되는 현상이 차후 확인되고, 이를 통해 해당 주체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담화 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인물의 예견이 예견하는 대상의 비범함을 예견하는 것과, 인물의 예견이 예견하는 주체 스스로의 비범함을 예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문총화>에서 예견담의 담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 1) 판서 이세좌의 부인 모씨가 있다.
 - 2) 이세좌가 폐비 윤씨의 사약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다.
 - 3) 이세좌의 부인이 이를 듣고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다.
 - 4) 훗날 이세좌와 이세좌의 아들이 모두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하다.
- (62, 예견에 뛰어났던 이세좌의 부인)

이 이야기에서 예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세좌의 부인이다. ‘남편이 폐비 윤씨의 사약을 전달했다’는 것이 현상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견의 주체가 가문의 몰락을 예견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세좌와 이세좌의 아들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부인의 예견이 사실로 밝혀진다. 특정한 사건이 미래로 연결될 인과를 예견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세좌의 부인이 가진 지혜, 즉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세좌 가문의 몰락이라는 사건에 일종의 당위를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이미 비극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실마리가 배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석자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가진 인과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1) 판서 이명은 전주 사람이고 이량의 손자인데 호조판서로 있다.
- 2) 당시 참판 임의백이 낭청으로 있다.
- 3) 청나라 장수가 조선에서 품질 좋은 왜검을 찾다.
- 4) 이명이 임의백을 시켜 장사꾼들에게 그 칼을 찾으라고 하다.
- 5) 칼을 찾자 이명이 그 칼을 자기 집에 간수하고 또 한자루를 구하라 하다.
- 6) 장사꾼들이 이명을 원망하다.

- 7) 임의백이 이명의 흉을 보다.
 - 8) 칼을 새로 찾았으나 먼저 칼보다는 훨씬 못하다.
 - 9) 이명이 두 번째 칼을 청나라 장수에게 주라고 하다.
 - 10) 얼마 후 청나라 황제가 보검을 찾다.
 - 11) 이명이 첫 번째 칼을 청나라 황제에게 주다.
 - 12) 이명이 청나라 황제의 청을 예견하고 칼을 두자루 준비한 것임을 밝히다.
- (91, 앞날을 예견한 이명)

이명은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여 예견하는 주체이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가 필요하다. 이명은 ‘**앎savoir**’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현상을 해독한다. ‘청나라 장수가 품질 좋은 왜검을 찾는다’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품질좋은 왜검을 구해 청나라 장수에게 전달한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은 좋은 검을 두자루 구한 후,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검을 청나라 장수에게 전달한다. 이는 이명이 ‘청나라 황제도 왜검을 찾게 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 때 이명의 예견은 직접적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대신 ‘좋지 않은 검을 청나라 장수에게 주어라’ 혹은 ‘가장 좋은 검은 청나라 장수에게 주지 말라’는 간접적 발화로 암시된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이명과 비교되는 반-예견의 주체도 존재한다. 임의백이 그 주체인데, 그는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해독한다. 이는 두 행위자가 ‘**앎**’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앎의 능력을 가진 주체와 그렇지 않은 주체의 역량이 비교될 수 있다. 현상은 단순히 훌륭한 칼을 찾아달라는 요구였지만, ‘청나라 장수가 칼을 찾으므로 청나라 왕도 칼을 찾을 것이다’로 확장되는 주체의 앎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바탕이 된다. 이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견하는 주

체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담화가 된다.

- 1) 판서 신임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
- 2) 신임이 손녀의 사윗감을 알아보기 위해 애쓰다.
- 3) 신임이 장동을 지나가다가 초라한 행색의 아이를 발견하다.
- 4) 신임이 아이를 불러 이름과 사는 곳을 묻고 손녀딸의 정혼자로 삼다.
- 5) 신임이 그 아이를 손녀 사위로 삼으려 하자 며느리가 탐탁치 않게 여긴다.
- 6) 혼인을 한 후 새신랑이 기이한 일들을 하다: 끼니거리가 없다고 처가에 찾아 오다
- 7) 혼인을 한 후 새신랑이 기이한 일들을 하다: 매일 안방에서 자며 신부를 괴롭혀 신임과 함께 자게 되나 잠버릇이 고약하다.
- 8) 혼인을 한 후 새신랑이 기이한 일들을 하다: 진상할 떡 중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니 큰 것으로 100동을 집어간다.
- 9) 새신랑의 이름은 유척기로 후에 80까지 해로하며 영의정에 이른다.
- 10) 유척기가 사위를 본 후 진상할 떡 중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니 사위 흥익이 열동만 골라 충분하다고 하다.
- 11) 유척기가 사위가 음관이나 할 재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다.

(212, 유척기를 손녀사위로 고른 신임)

해당 텍스트는 사람보는 안목이 있는 신임이 실제로 적합한 손녀사위를 골랐던 과정을 기술한다. 이때 예건의 주체는 신임이 된다. 신임은 유척기의 외양만을 보고 크게 이름을 떨칠 것임을 예견하여 그를 자신의 손녀 사위로 삼는다. 이때 신임과 대비되는 것이 그 며느리이다. 며느리는 유척기의 초라한 행색과 가난한 집안 때문에 자신의 사위가 되는 것을 꺼린다. 즉, ‘초라한 유척기의 외양’이라는 현상에 대해 며느리로 대변되는 보통사람들의 해석과 신임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앞서의 텍스트들에서처럼 이는 예견 주체인 신임이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신임 뿐 아니라 유척기라는 인물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사건을 예견하는 주체의 능력이 강조됨과 동시에, 예견의 대상인 유척기가 가진 비범함이 강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신임의 비범함 뿐 아니라, 유척기의 입신양명에 일종의 인과성과 방향성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뒷부분 일화는 예견 대상의 비범성을 강조하면서, 예견 대상인 유척기가 예견 주체로 변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신임이 유척기에게 일종의 과제로 제안했던 동일한 과제를 유척기 역시 자신의 사위에게 내놓는데, 이를 수행하는 자세는 상이하다. 따라서 유척기 스스로 사위의 사람됨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일한 과제에 다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가 가진 비범함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예견하는 사람의 능력과 더불어 예견 당하는 대상의 능력, 혹은 비범성을 잠재적으로 기술하는 텍스트 역시 다수 찾을 수 있다. 예견담에서 강조되는 것을 단순히 예견의 주체의 비범한 능력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기문총화〉의 많은 예견담에서, 예견의 대상이 비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예견의 주체가 무명의 인물이고, 예견의 대상이 역사적 인물일 때 예견의 주체가 대상의 비범함을 지적하는 것은 예견 주체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대상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 평성부원군 신경진이 벽란도를 건너다 배에서 풍파를 만나다.
- 2) 맹인 한 사람이 귀인이 배에 타고 있다면 살 수 있다 하다.
- 3) 신경진의 사주를 듣고 맹인이 정승이자 대제학이라 하다.
- 4) 신경진이 자신은 선전관이라 대제학이 될 수 없다 하다.

- 5) 후에 신경진은 영의정이 되고 대제학의 임무도 겸임하다.
(541, 점쟁이의 말대로 영의정이 된 신경진)

이 텍스트에서는 예견 주체인 점쟁이의 비범함이 드러나지만 결국 강조하는 것은 예견 대상인 신경진의 비범성이다. 물론 신경진이 영의정과 대제학이 될 것이라는 예견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견을 통해 대상의 비범함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다. 예견의 주체는 무명이고 신경진은 실존 인물이므로 신경진이 가지는 비범함이 더욱 강조된 셈이다.

- 1) 문절공 조원기가 허암 정희량과 친하게 지내다.
 - 2) 정희량이 한림이 되자 조원기가 찾아가 머물다.
 - 3) 다음 날 높은 벼슬아치의 행차를 보다.
 - 4) 정희량이 조원기에게 그들이 부러운지 묻다.
 - 5) 조원기가 이를 부러워하자 정희량이 조원기 역시 앞으로 40년 궁하게 살고 나면 이후 40년은 출세해서 살 것이라 하다.
 - 6) 조원기가 한강을 건너다 파선이 되어 물에 빠지다.
 - 7) 조원기가 정희량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원망하다.
 - 8) 조원기가 혜엄을 쳐서 육지로 금방 피신하다.
 - 9) 이후 마흔이 된 조원기는 출세하여 팔십수를 누리다.
- <93, 조원기의 일생을 예견한 정희량>

해당 텍스트 역시 유사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예견의 주체를 정희량으로 볼 때 조원기가 출세할 것임을 예견한 정희량의 식견이 드러나는 에피소드인 셈이다. 그런데 조원기라는 인물의 비범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견된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견의 대상인 조원기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예견의 대상은 여기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조원기가 출세할 것’이라는 예견의 근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맥락을 고려한다면, 조원기가 보여왔던 인품, 혹은 그의 삶 혹은 관상 등이 이러한 예견의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추론일 뿐, 텍스트를 통해 주어진 정보는 아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신임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형태였다. ‘초라한 유척기의 외양이 드러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유척기의 출세’를 예견한 것인지, 그리하여 사뭇감으로 삼기로 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텍스트들에서 예견 자체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의 담화 구조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 1) 이기축은 주막집의 머슴이었다.
- 2) 주인집 딸이 시집갈 때가 되자, 기축에게 시집가기를 원하다.
- 3) 부모가 딸을 말렸으나 듣지 않아 두 사람이 혼인하다.
- 4) 부인이 이기축을 데리고 서울 장동에 술집을 차렸는데 술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 5) 부인이 이기축에게 『사략』 1권에 ‘이윤이 태갑을 폐하였다’는 구절을 표해서 주며 신문문 뒤로 가서 이 구절을 펼쳐 놓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라 하다.
- 6) 기축이 신문문에 가보니 7-8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시킨대로 말하다.
- 7) 사람들이 기축에게 이를 알려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집으로 함께 가다.
- 8) 기축의 부인이 이들을 대접하며 이들의 일을 알고 있으니 자신의 남편의 완력을 사용하라 이르고 공신 명단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다. 또한 집을 회합 장소로 제공하다.
- 9) 후에 의병을 일으킬 때 이기축이 장군을 죽이고 2등 공신에 오르다.
(196, 현명한 아내 덕에 2등 공신이 된 이기축)

해당 텍스트에서 예건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축의 부인이다. 기축의 부인은 두가지의 예건을 하는데 ‘기축이 비범해질 것’을 예견하여 기축을 남편으로 삼았고, ‘특정한 방법으로 도우면 공신 명단에 오를 것’을 예견하여 의병에 도움을 준다. 주막집 머슴이었던 기축의 장래를 예견하여 그를 남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예견에 바탕하는 근거는 해당 에피소드에서도 구체적이지는 않다. ‘남편의 완력을 사용’하라는 구절을 고려한다면 부인이 기축을 비범한 인물로 인식하게 된 근거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적 담화에서처럼 구체적이거나 단독적인 대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는 예견 주체인 이기축 부인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한 에피소드이지만 단순히 부인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목적만은 아니다. 이기축이라는 대상의 비범함 역시 강조된다. 유척기의 일화처럼 이기축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일화가 추가적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성공 혹은 출세의 필연성을 강조할 수 있다.

- 1) 상공 정태화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장수할 아들, 부자가 될 아들, 벼슬을 할 아들이 태어날 테니 기이하다고 하다.
 - 2) 아들인 정재약은 80세까지 장수하다.
 - 3) 정재륜은 효종의 사위로 거부가 되다.
 - 4) 정재승은 벼슬이 우의정에 머무르다.
- (166, 세 아들의 평생을 예견한 정태화)

해당 텍스트는 매우 짧은 분량의 이야기이다. 이 텍스트에서도 예건의 주체와 대상만 드러날 뿐 논리적 과정이 서술되지는 않는다. 정태화가 예건의 주체, 그의 아들들이 예건의 대상이다. 이 텍스트에서 정태화는 태어

나지도 않은 아들들의 미래를 예견할 능력을 가진 주체이며 따라서 비범한 인물이다. 동시에 그의 아들의 업적이 강조되며 예견 대상들 역시 비범한 인물로 기술된다.

물론 이 텍스트에서도 역시 정태화의 앎, 즉 능력은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이기축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이 추측하여 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던 반면, 이 텍스트에서는 이조차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담화 구조는 〈기문총화〉에서 기술되는 예견담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폐비의 사약을 전달한 이 세좌의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견의 근거가 과정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판단할만큼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3. 〈기문총화〉 소재 예견담의 담화 특징

예견담은 종종 수수께끼담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³⁾ 수수께끼담이 발신자가 수신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해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예견담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

3) 독자와 인물 간에 '해답의 앎과 모름'을 기준으로 하여 미크 발Mieke Bal이 유형화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모름 작중인물=모름(수수께끼, 탐정소설)

독자=앎 작중인물=모름(위협)

독자=모름 작중인물=앎(비밀)

독자=앎 작중인물=앎(긴장감 없음)

이러한 양상을 볼 때 기존의 수수께끼담과 예견담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호, 『三國遺事』수수께끼談의 서사 원리와 세계관,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322쪽.

다. 그러나 수수께끼담이 비교적 언어적 담화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예견담은 보다 넓은 의미의 담화를 포함한다. 간략히 말해, 수수께끼담이 언어적 담화의 심층적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이라면, 예견담은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인 셈이다.

수수께끼담은 유희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수께끼담이 유희성을 가지는 것을 구술 연행 상황의 특수성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 수수께끼담의 경우, 연행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직접적인 ‘접촉’의 과정에서 유희성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헌설화화 된 구술서사의 경우 실제 연행되는 일은 적다. 다만 담화적 독자를 상징하게 될 뿐이다. 수수께끼담과는 달리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유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문총화>의 예견담은 우선, 수수께끼담이 가졌던 유희성을 상실한다. 물론 이는 <기문총화>에서 ‘만’ 드러나는 예견담의 자질은 아니고 문헌화된 기타 야담집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질이다.

<기문총화>에서 예견의 대상은 대부분 인물, 즉 인물의 미래이다. 특정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예견하는 셈이다. 이때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남겨진 인물들이 추가 된다. 간혹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미래를 예견하는 경우에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⁵⁾ 이것이 <기문총화>의 예견담에서 두드러지는 담화

4) 수수께끼담의 경우 그 유희성과 놀이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이 일부 있다. 구술 담화의 연행 상황에서 유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담화적 틀로서 수수께끼담이 연행되었으며, 그것이 구술담의 구술성을 확보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김경섭,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4, 43-52쪽.

5) <기문총화>의 텍스트를 인물담과 사건담으로 나누는 선행연구의 시각 역시 존재하긴 하지만 예견 주체와 예견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예견담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굳이 인물담과 사건담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예견은 사

적 특질과 관련된다. <기문총화>의 예견담에서는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숨겨진 채 예견 주체의 예견 발화가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는 예견이 일종의 해명 혹은 당위로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장에서 언급한 유척기와 신임의 텍스트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임은 유척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다. 그러므로 신임이 앎의 능력을 가진 예견의 주체임은 자명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신임의 비범성이다. 물론 이 텍스트는 유척기의 비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기능한다. 그런데 예견의 대상인 유척기가 가진 ‘초라한 행색’이라는 조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범한 인물로 평가할만한 외적 내적 지표는 텍스트 내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예견대, 대상, 즉 정보를 텍스트 내의 예견 주체와, 그리고 메타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독자에게까지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연달아 제시하여 해석의 합리성을 이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보를 ‘숨긴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생략하는’ 것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기문총화>에서 텍스트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지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문총화>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당 인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해당 사건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인지 완료된 사건에 대한 후일담으로서 텍스트의 역할도 존재한

건의 발생을 뜻하고, 이는 사건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일을 할 것이다’거나, ‘특정한 사람이 특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술로 구체화할 수 있다. 결국 사건을 예견한 것도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예견한 것으로 본다. 김현미, 『『기문총화』의 문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6쪽 참조

다고 본다. 이 텍스트에서 예견 주체의 합리성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야담집에서 예견담의 특질을 보이는 텍스트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우야담>에서 ‘유진담의 사람됨을 알아본 이자견’이라는 예견담을 간략하게 분석하기로 한다.⁶⁾이 예견담은 이기축의 비범함을 알아본 <기문총화>의 예견담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텍스트에서 ‘유진동의 뛰어난 씨름 실력’과 ‘유진동의 무퇴한 행동’이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후자보다 전자를 눈여겨 본 이자견의 비범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예견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견 주체를 위해 주어진 정보는 어우야담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이자견이 유진담의 사람됨을 알아보게 된 근거로 ‘씨름을 잘한다’는 정보가 주어지며, 이에 대해 처음 이자견의 누나는 ‘씨름을 잘한다’는 것이 사람됨이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이자견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이미 예견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완전하지 않

6) 해당 예견담은 다음과 같이 서사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유진동은 관례를 치르기도 전에 부모를 여의어 배우지 못하다.
- 2) 날마다 장안의 협소배와 노닐며 마을의 돼지를 훔쳤다.
- 3) 유진동이 큰길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씨름을 했는데 당할 자가 없었다.
- 4) 이를 재상 이자견이 보고 유심히 살피다.
- 5) 이자견이 유진동에게 신상을 묻고 떠나다.
- 6) 이자견이 자신의 누나에게 유진동을 사위 삼기를 권하다.
- 7) 유진동이 무퇴한 짓을 일삼으나 이자견이 기다리라 하다.
- 8) 유진동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다가 낙마하여 기절했다 소생한 후 무예를 버리기로 다짐하다.
- 9) 학문을 닦아 입신양명하다.

유몽인, 신익철 외 삼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98-99쪽.

은 정보라 할지라도, 예견의 합리성이나 적절성, 혹은 동기를 파악할만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시되는 것이 예견담의 담화 구조라 할 때, <기문총화>의 예견담의 구조는 다소 유표적인 자질을 지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어우야담 소재 예견담에서도 <기문총화>에서처럼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갑자계와 유숙의 선견지명’⁷⁾에서는 유숙이 김응서가 역적이 될 것이라고 한 예견의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는 <기문총화>에서처럼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기문총화>에서는 예견담의 거의 전부에서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배제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기존의 예견담들과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기문총화>의 담화가 일종의 비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한 나름의 당위와 합리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실마리들이 주어지고 이것을 특정한 사건으로 해독해 내는 그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건에 내재된 실마리 혹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예견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의 합리성과 비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토대로 과거를 재구하여 사건의 당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7) 해당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서사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부제학 유숙이 여러문무 관료와 동갑계를 만드려고 하다.
- 2) 김응서가 동갑이어 다른 관료들이 그가 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려 하다.
- 3) 유숙이 이를 큰소리로 물리치며 김응서가 역적이 될 것이라 하다.
- 4) 이괄이 유숙에 찬동해 김응서가 동갑계에 참여하지 못하다.
- 5) 후에 김응서가 부원수로서 오랑개에게 항복하다.

유몽인(2006), 앞의 책, 804쪽.

이것이 <기문총화> 예견담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담화적 특질이다. 예를 들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 담론이 구술집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유척기가 왜 신임의 사위가 되었는가, 혹은 주막집 머슴이었던 이기축은 어떻게 출세를 하여 공신이 되었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역사적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지만, 역사가 역사로서 인지될만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기 전, 비교적 동시대적 사건으로 인지될 때, 이에 대한 인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담론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문헌이든, 혹은 구술이든, 다채로운 층위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구술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기문총화>의 예견담 담화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공적인 사건에 대한 공적인 당위가 아니라, 다소 비합리적이거나 완전히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적인 규명의 과정이 혼종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하리라고 믿어졌던 사건들에 대해 ‘나름’의 합리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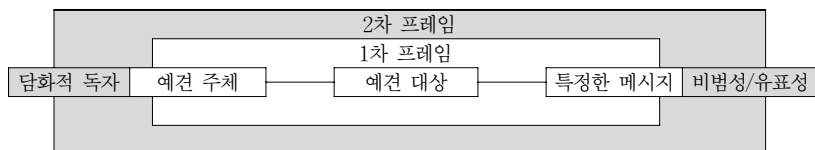
4. 예견담의 문화적 특성 밝히기:

야담집 내부의 담화성 도출의 의미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예견담의 담화 구조⁸⁾를 개략적인 프레임으로 구축할 수 있다. 예견담의 담화 구조를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이는 이중 프레임의 구조를 띠고 있다. 예견담에서 발신자인 예

8) 해당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도식을 변형하여 구축한 것이다. 담화적 독자란, 서사학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텍스트에서 상정된 가상의 독자를 의미한다. 야담집을 읽게 되는 당대와 현대의 독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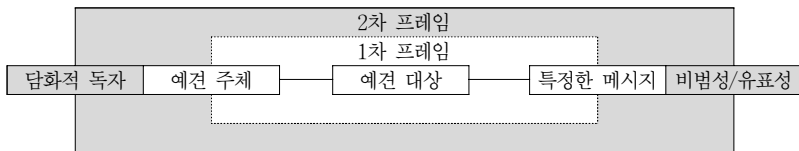
견 주체는 메시지에 해당하는 예견 대상을 해석하고, 이를 특정한 메시지로 발화한다. 이 발화는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권유, 금지의 발화일 수도 있고, ‘무엇은 무엇이다’는 단정의 발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는 예견 주체에게 먼저 주어지지만, 이는 담화적 독자와도 공유하게 되는 정보이다. 담화적 독자는 이 정보를 토대로 예견 주체가 합당한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해석의 능력을 가진 비범한 주체인지를 판단한다. 물론 예견 주체의 해석의 합당성은, 텍스트의 마지막에 기술되는 결말에 따라 텍스트 내부에서 완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예견 주체와 담화적 독자가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예견에 대한 담화적 독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예견 주체의 판단에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문총화〉의 예견담의 구조틀-표1)

〈기문총화〉 예견담의 담화 구조 역시 앞서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발신된 특정한 현상, 즉 예견의 대상을 수신자, 즉 텍스트 상의 예견 주체가 자신의 앞을 토대로 해석한다. 이 해석은 이야기의 결말에서 그 진위가 밝혀지게 되고, 이것이 첫 번째 담화의 프레임이다. 그런데 예견 주체가 ‘가졌을’ 예견 대상에 대한 정보가 담화적 독자에게는 공유되지 않는다. 예견 주체는 텍스트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견의 발화를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에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이 예견에 대한 합리성은 담화적 독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즉, 예견 주체의

예건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예건 주체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텍스트 내부에서 완결되지만, 담화적 독자의 판단은 해당 프레임 내부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담화 바깥의 프레임에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 <기문총화>의 이러한 담화 구조는 결국, 예건 대상에 대해 담화적 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석이 완료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견담의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담화적 독자들이 개입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다. 앞서의 표에서는 예건의 과정이 텍스트 내부에서 완료되고 담화적 독자가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아래의 표에서는 담화적 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건의 과정에 자신의 콘텍스트를 활용하고, 따라서 예건의 주체의 합리성과 담화적 독자가 가진 콘텍스트의 실재성이 혼종되는 양상이 발생한다.



<<기문총화> 예견담의 구조틀-표2>

정태화가 자신의 아들들의 일생에 대해 예견하는 2장에서의 텍스트를 떠올려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태화는 단지 자신의 아내의 배를 가리켜 “장수할 아들, 부자가 될 아들, 벼슬을 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한다. 이를 예견하게 된 정보는 담화적 독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텍스트에서 이 예견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정보는 최종적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결말이 주어지기 전에도, 담화적 독자가 정재약, 정재륜, 정재승이란 인물에 관련된 자신의 개별적인 콘텍스트, 즉 개별적 앎을 활용한

다면, 이 해석의 과정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담화적 독자의 읽을 활용해, 예견의 주체 뿐 아니라 예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의 비범성 역시 인식하게 되는 데에 이른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견의 주체 자체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의 능력, 즉, 예견하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만이 텍스트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텍스트에 예견을 위해 제시되는 정보의 양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텍스트의 완결이나 확인이 내부의 주체들보다는 담화적 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화적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제된 담화 프레임은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콘텍스트 상에 위치한 담화적 독자의 읽과, 프레임 내부에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생겨난 담화적 독자의 읽, 그리고 예견의 주체가 가진 능력 혹은 읽이 만나는 지점에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수신자는 자신의 코드를 활용해 해당 메시지를 해호화하게 된다.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수신자의 코드에 따라 메시지가 다양하게 해독될 수 있으며, 해독된 메시지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면 이것이 텍스트성이 확장되는 과정이고, 해당 메시지는 일종의 시적인 메시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메시지의 해독 과정에서 수신자의 코드가 발신자의 것과 최대한 일치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메시지가 해독된다면 이 메시지는 메타적인 메시지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⁹⁾

그런데 이와 같은 예견담의 담화 구조를 고려한다면 해독은 다른 의미가 된다. 기존 예견담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특정 현상이

9)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1997, 238-243쪽 참조

주어진다는 것은 예견, 즉 해석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다시 말해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해독될’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신자, 즉 예견의 주체가 이 방향성에 맞는 코드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방향성에 합치하는 해독을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 현상의 코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예견 주체가 가진 비범한 능력이 된다.

그런데 <기문총화>의 담화는 이러한 성격을 띄고 있지 않았다. 정보를 최소화하여 예견의 주체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예견의 합리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술 양상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예견이 일반적인 현상의 해석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현상을 확인하고 당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역할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기술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앞서의 정태화 이야기를 다시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담화적 독자가 이미 세간에 알려진 세 형제의 복록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했다면, 이는 아버지인 정태화로부터 물려받은 비범성에 기인한 것이며, 아버지인 정태화가 타고난 복록 때문이라고 해명될 수 있다. 나름의 인과를 도출해 보는 과정이 마치 예견의 과정인 것처럼 기술되고¹⁰⁾, 담화적 독자는 이러한 앎을 해당 예견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통의 과정은 메시지의 해독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해독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기문총화>의 예견담은 이미 일어난 실제적 사건에 대해 이미 인과성이 함축되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코드에 최대한 합치하는 ‘코드성’을 산출해내는가, 즉 담화적 독자의 코드성과 텍스트의 기술 사이에 공유 가능한 코드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¹¹⁾ 이때

10) 도출된 인과가 논리적으로 규명가능한 합리성을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의 담화 형태를 띠는 것일 수도 있다.

텍스트에는 담화적 저자가 존재하며, 예견담의 형태로 기술된 이야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들은 담화적 독자들과 공통 코드를 가진 셈이다. 〈기문총화〉에는 밝혀진 저자, 편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담화적 독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와 공통의 코드를 공유했는지 확인하며 그 역도가 가능하다.

5.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문총화〉 예견담에 드러나는 담화적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기문총화〉 속에서 예견담은 예견하는 인물의 능력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담화가 아니라, 오히려 담화적 독자가 자신의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텍스트를 해호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담화 구조로 읽혀진다. 과거에 드러난 실마리를 토대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기보다는 현재의 지식과 컨텍스트를 통해 당위를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 셈이다.

이는 확장한다면 〈기문총화〉가 가진 야담집으로서의 기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이하고, 비범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공적 서술과 사적 규명이 혼종되고, 텍스트 내부의 예견의 주체와 텍스트 외부의 담화적 주체가 혼종되며, 사적 규명의 주체가 텍스트를 구축하는 목소리이자, 텍스트의 적극적인 독자가 된 셈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굳이 〈기문총화〉를 활용한 것은 〈기문총화〉가 가진 야담집으로서의 총체성 때문이다. 만일 이

11) 텍스트의 확장성에 주목하는 첫 번째 소통의 양상과 코드의 합치성에 주목하는 두 번째 소통의 양상 사이 가지는 담화적 성향은 다소 상반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송효섭, 앞의 책, 233-243쪽 참조.

것이 <기문총화>에서만 나타나는 예견담의 특징이라면, <기문총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야담집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기의 문화적 성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확장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동욱 편,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상, 중, 하, 아세아 문화사, 2008, 1-688쪽.
-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 집문당, 1991
- 정명기, 『야담문학연구의 현 단계』 1, 2, 3, 보고서, 2001.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1, 17-354쪽.
- 유몽인, 신익철 외 삼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1-859쪽.
- 김경섭,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4, 1-150쪽.
- 김준형,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 : 『기문총화』 1권 필기·폐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6, 2000, 57-83쪽.
- 김현미, 『『기문총화』의 문학성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77쪽.
- 이호, 『三國遺事』 수수께끼談의 서사 원리와 세계관, 『한국고전연구』3, 한국고전연구학회, 319-344쪽.
- 정명기, 『야담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27-55쪽.

〈목록〉

번호	인물	예견양상
1	광해군	떡물
2	성종	시 한구절로 자신의 죽음 예고->신하 이해
3	구수영(집 중)	고기와 음식 마련 중중반정 회유
4	유운	조광조 죽고 화가 미칠 것을 예출
5	홍섬 허흡	허흡이 홍섬이 허항의 집에 가면 화가 있을 것
10	김용하	꿈에 적군을 보고 충심으로 싸움
12	권필	시를 읽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
15	이시방-궁녀	광해군의 은혜를 입지 않은자가 대접하고 있음을 알
21	성간	병중에 시를 써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
22	이정	위와 동
27	이서	부원군 이서를 도깨비가 알아봄. 미래를 예언
32	관상	광평대군이 굶어죽을 관상
33	관상	광양군 이세좌가 흉함을 예언
34	점쟁이	점쟁이가 시로 한층의 흉함을 예언
35	무당	이장꾼이 집에 몰래 왔음을 알림
36	남사고	남사고가 동서 분당을 예견
38	조신준	자신이 쓴 시가 신희의 만가가 될 것을 예견
39	김시양	꿈에 시를 얻었는데 이 예언이 적중
40	성석린	꿈의 예언을 잘못 해석함
42	남두병아버지	김자점 꿈에 나와 남두병의 척후장 임무를 바꾸어 달라 함
43	진인	성현이 진인을 만났는데 오늘 중에 새계를 넘으라 아름
62	이세좌부인	폐비윤씨에게 사약내린 이세좌가 보복당할 것을 예견
75	신숙주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 청의동자를 만나 도움받음
91	이명	좋은 칼을 미리 구해 가지고 있다 나중에 내어 줌
93	정희량	조원기의 일생을 예견
122	어느대신	신라 소지왕에게 한사람이 왕을 뜻함을 일러줌
166	정태화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아들의 일생을 예견
189	서경덕	제자를 보내 호랑이가 잡아가려는 처녀를 구함
190	박엽	용골대와 마부대의 염탐을 알아냄
192	박엽	재상아들의 액운을 막음
193	박엽	자신의 죽음 후를 예견, 그러나 점괘는 잘못 해석

번호	인물	예견양상
195	정충신	당태종이 될 왕자를 예견
196	이기축	출세함
198	점쟁이	이항복을 통해 친구의 목숨을 구하게 함
207	김수항 부인	아들인 김창흡이 고른 손녀사위와 손녀의 앞날 예견
209	유척기	조문명의 도량을 보고 벼슬자리와 앞날 예견
212	신임 유척기	유척기의 관상을 보고 유척기 손녀사위로 고름 유척기가 사위의 됴됨이 예견
213	대사	관찰사의 아들이 대사의 기지로 목숨을 건짐
214	유생의 아내	미래를 예견, 화를 피하게 함
216	김수	관상을 보아 자신의 뒤를 부탁하여 화를 피함
224	김응림	신통하게 병을 고침
235	5촌당숙	귀물의 정체를 인지함
244	정충신 소실 정충신	정충신에게 해야할 일을 일러줌
245	이여송/유성룡	신통한 무술/이여송의 피를 알아챈
246	이안눌 소실	우연히 소실이 되어 나중에 다시 결합
250	민백상	김대감을 알아보고 후원해줌
251	김애	남을 도와줘 나중에 그들이 은혜를 갚음
253	한광근	한광근 어머니의 은혜를 입은 중이 무덤터를 잡아주나 잘못 이장하여 결국 해를 입음
254	한준경/피가 사위	한준경이 이인을 청지기 피가의 사위로 얻어주고 사위가 두집안을 살려냄
255	이우	호환을 예견함
259	이인(나그네)	나그네가 아들을 다시 얻을 것을 예견, 머느리도 점지 머느리가 앞날을 예견, 전쟁을 피하고 살림을 보호
260	안생	아버지가 참봉 벼슬 할 수 있게 도움 백인걸의 죄를 미리 벗겨 환란을 피하게 함
262	이지함	기이한 행동
268	이덕중	과거급제 길몽에 나온 밥을 나누어 먹고 둘다 급제
282	이원	중이 올 것을 예측, 자신이 힘을 회복한 날 오기를 요망
295	상인	이정보의 아들이 죽을 것을 예측
291	주막주인	홍우원의 성품을 보고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
298	바보야재	일본 자객이 올 것을 알고 유성룡을 구함
301	김천일 부인	김천일을 도와 큰일을 도모함

번호	인물	예견양상
302	기생	노진을 도와 과거 급제를 도움
306	이완	박탁을 조정에 천거
308	중	중이 된 명나라 유민이 효종의 죽음을 예견
320	유영	관상을 보아 강백년의 운명 예견
321	지역천	박이서 운명 예견
323	정쟁이	김명원의 밑애를 알아냄
324	유성증 혼령	앞날 예견
327	박필활 아내	남편의 부정시험을 예견
352	오씨부인 혼	인평대군 계집종에 혼령이 내려 환을 예견
369	부채의 글귀	유자광의 죽음을 예견
373	산에서 얻은 물건-물주머니	물건에서 피가 나와 나쁜 징조임을 앎. 이듬해 가족몰살
385	이웃할미 충청도 선비	두 사람의 꿈에 임숙영의 임종이 암시됨
387	점쟁이	윤필상이 삼림에서 죽을 것을 예견
389	호랑이 늪은 중	호랑이가 호위함 중이 한명회의 출세를 예견
396	구인후 아내	한밤중에 면회를 나가는 구인후에게 위의를 성하게 갖추라 함 모반을 꾀한 이들을 잡음.
401	성담년	성담년의 아내가 남편없이 아이를 낳으나 꿈에서 만났음을 밝힘, 성몽정이 태어남
402	정태화	시장에서 물건파는 여인이 남편을 얻었음을 알아냄
408	이합	사람들의 관상을 잘 봄
413	맹인 점쟁이	민형남과 이정구의 앞날 예견
414	기생	박신규 출세 예견
422	이지합	이덕형의 됃됨이를 알아보고 조카사위로 삼음
427	언립	이평산 아들 이시백의 됃됨이를 알아보고 혼인성사시킴
448	강극성 시	김홍도가 일찍 죽을 것을 예언
458	점쟁이 장순명	이시백, 최명길, 장유의 일생을 예언
471	이호민/이항복	이호민이 시로 이항복의 죽음을 예견, 이항복도 스스로 예견
522	정유길	사위 김극효의 관상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음
523	이산해	오운점을 정철의 사위로 추천, 꺼릴 것도 예견
524	유씨부인	홍서봉의 어머니이자 유몽인의 누이인 유씨가 감식안이 뛰어남. 이후 원이 재상, 홍명일이 장원

번호	인물	예견양상
525	김시양	청나라 사람들이 한강이 아니라 삼전도로 올 것을 예견, 병자호란 예견
527	아전	조익을 부축하고 정승이 될 것을 예측
529	조정호	아들 조석윤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음
534	허욱 장모	장모가 꿈을 꾸고 사위에게 시험을 보게 함. 허욱이 책을 주워 급제 함
535	이급	부인의 꿈을 해석해서 윤지선 윤지완이 과거에 급제할 것 앞
536	도승	이세화의 일생 예견
541	맹인 점쟁이	난파할뻔한 배에서 신경진의 성공을 예견 (영의정이 되고 대제학 격이 됨)
542	강서	동생 강신이 있어 임진왜란의 화를 면할 것을 예견, 강홍립이 집안을 망하게 하고 신희의 그릇을 알아봄
549	홍섭	홍서봉의 시를 보고 재상의 그릇임을 예견
566	홍계관	홍윤성의 점을 치고 자신의 자식을 구해주기를 부탁
579	김정국	시에 능한 교생의 시를 보고 귀신이 썼다는 것을 알아봄
585	양사언	날 비 자를 써놓고 자신의 정력이니 잘 간수하게 함, 종이가 날아가 죽음
592	이산해	이원익의 인물됨을 알아봄, 서익은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
593	이원익	이경여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
601	이항복	꿈을 꾸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
609	유생원	정경세가 과거보러 가는 길에 유생원이란 이인을 만나 자신의 앞날을 들음
621	중국 역관	이이첨과 허균의 관상을 보고 불길한 미래 예견
624	김수온	김종직의 시를 읽고 재능을 알아봄

ABSTRACT

The Discourse Analysis of Predictions: In *Kimunchongwha*

Hwang, In-s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discourse structure of predictions in *Kimunchongwha*. It has not been known the author of *Kimunchongwha*. Instead of tracking historical origins, we will consider the discourse structure of *Kimunchongwha*, to investigate identity of narrative literature.

In *Kimunchongwha*, most of tales is classified in *predicting narratives*. *Predicting narratives* mean that subject predict certain condition so that this prediction will be proved to the truth. These are normally objected to demonstrate the ability of predicting subject.

However, the characters of discourse structure in *Kimunchongwha* are relatively marked. Most of all, the predictions are related to discursive readers: how they decode the message using their context. Because these predictions tend to not give reasonable clues for subjects, neither for discursive readers. Therefore, discursive readers decode and participate more actively with their context, acknowledge, predictions in *Kimunchongwha*.

Key Words narrative struture, *Kimunchongwha*, discourse structure, predictions, communication

논문투고일 : 2013. 10. 15

심사완료일 : 2013. 11. 10

게재확정일 : 2013. 11. 26